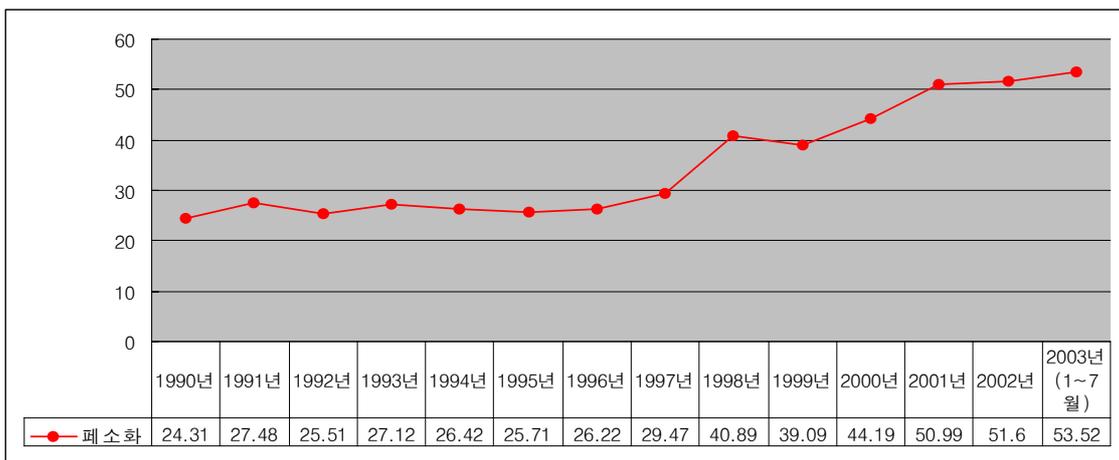


필리핀, 페소貨 환율불안 지속

국별조사실

- 필리핀 페소貨는 1990년 이후 달러당 25~28 페소의 박스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다 1997년 아시아 금융 통화 위기때 한차례 급락하였으며, 2000년 후반부터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한 정치적 혼란속에서 다시 한차례 급락하여 2001년 1월에는 55.75 페소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그 이후 53~54페소 박스권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였음.

〈그림-1〉 1990년 이후 필리핀 페소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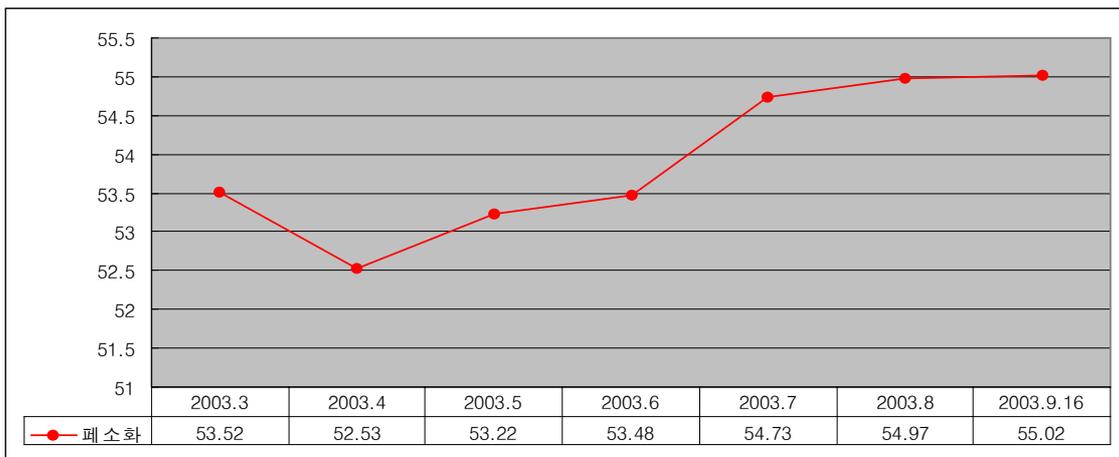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페소貨 최근 환율 동향

- 페소貨는 지난 5월 중순경 달러당 52.0 페소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왔으며, 지난 7월 말의 쿠데타 발생 이후 급락, 지난 8월 26일에는 Arroyo 정부출범 31개월만의 최저치인 55.6까지 하락하였음.

<그림-1> 최근 필리핀 페소화 환율 동향^{주)}



주: 월말 기준임

자료: Bloomberg

- 이러한 배경으로 2/4분기 필리핀 경제의 성장세 둔화, 무역수지 적자 확대¹⁾, 해외근로자들의 송금 감소 등의 경제적 요인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쿠데타에 따른 치안불안, Lacson 의원의 부패의혹 제기²⁾, 2004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환율 불안 추세 당분간 지속

- 필리핀 정부는 페소화 하락은 일시적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적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1) 2003년 1~5월간 무역수지는 수출 140억 달러(전년대비 1.7% 증가), 수입 156억 달러(12.8% 증가)로 16억 달러 적자

2) 현 Arroyo 대통령의 지난 98년 부통령 출마시 선거운동 자금 잔액 2억 7,100만 페소를 남편이 불법 세탁하여 유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 2004년 대선을 앞둔 정국불안이 환율 안정의 최대변수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폐소호가 연말까지 54.00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 한편, 일부에서는 정치적 안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폐소화 불안은 지속되어 56.00선 이하로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불투명한 정국 불안속에서 이와 같은 환율불안이 지속될 경우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하에 환율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15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로 폐소화 방어에도 한계가 있어 인플레이 압력, 외국인 투자 감소, 외채상환 부담 증가, 정부 재정적자 확대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필리핀의 외환보유고 159억 달러에서 단기 원리금 상환액과 우발 채무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한 외환보유액을 69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